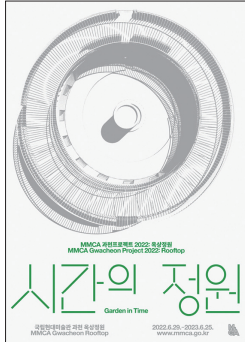


〈국립박물관, 미술관〉



MMCA 광천프로젝트 2022: 옥상정원_시간의 정원

기간 2022.6.29-2023.6.25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광천관 3층 옥상정원

옥상 공간을 예술·생태적으로 재생하여, 근경의 원형정원과 원경의 청계산, 저수지 등 넓은 자연을 아우르는 개념적 의미의 정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 전시이다. <시간의 정원>은 광천관을 둘러싼 자연을 극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시각적 장치인 동시에 자연을 입체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경험의 장소를 제안한다.



나라 밖 문화재의 여정

기간 2022.7.7-9.25

장소 국립고궁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

국외의 한국 문화재와 관련된 사업을 담당하는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설립 10년을 맞아 국내외의 문화재가 지나온 여정을 되짚어보는 전시이다. 전시된 유물과 자료는 우리 문화재가 외국에 나가는 과정, 다시 국내에 환수되는 과정, 그리고 해외의 문화재가 현지에서 다양하게 활용된 성과를 조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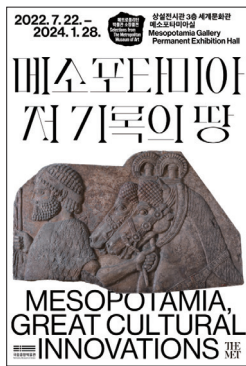


영원한 삶의 집, 아스타나 고분

기간 2022.7.16-2023.7.15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 3층 중앙아시아실

아스타나 고분은 중국 신장웨이우얼자치구 투루판시에서 인근에서 3세기경부터 8세기 후반까지 만들어진 지배 계층의 공동묘지이다. 이번 전시는 그 가운데 20세기 초 오타니 탐험대가 수집한 아스타나 고분 출토품에 대한 조사 성과를 공개하는 자리이다. 무덤 속 공간에 맞게 전시된 부장품들은 영원한 삶을 위해 꾸민 아스타나 고분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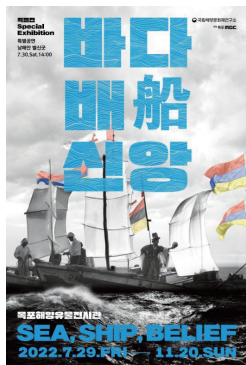


메소포타미아, 저 기록의 땅

기간 2022.7.22-2024.1.28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 3층 메소포타미아실

국립중앙박물관은 미국의 메트로폴리탄박물관과 공동으로 기획하여 상설전시관에 '메소포타미아실'을 신설하고 국립 박물관 최초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주제로 한 전시를 개최한다. 이 전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주요 성취를 소개하되 전문적 배경 지식이 없이도 관람할 수 있도록 문자, 인장, 종교, 초상미술 등을 접점으로 내용을 구성했다.



바다, 배船, 신앙

기간 2022.7.29-11.20

장소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목포해양유물전시관 기획전시실

풍요와 두려움이 공존하는 바다에서 선조들의 삶을 지탱해준 전통 해양 민속신앙과 의례를 소개하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의 특별전시이다. 풍어와 무사안녕의 염원을 축제로 승화시킨 바닷사람들의 생생한 삶을 느낄 수 있다.



MMCA 이견희컬렉션 특별전: 이중섭

기간 2022.8.12-2023.4.23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1전시실

삼성그룹 고 이견희 회장의 유족에게 기증받은 작품 중 이중섭의 작품과 국립현대미술관의 이중섭 기소장품을 모아 100여 점으로 구성한 전시이다. 이번 전시는 재료와 연대를 조합해 예술가 이중섭과 인간 이중섭을 고루 반영하고, 이중섭의 면면을 보여주며 그를 다시 보고자 시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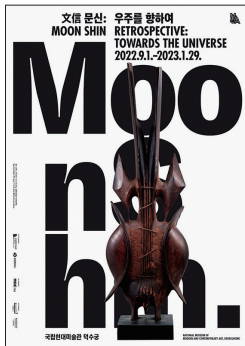


전시 배달부

기간 2022.8.24-2023.1.29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5층 기획전시실

《전시 배달부》는 현대 사회의 '배달' 문화를 미술과 미술관의 관점에서 읽는 전시이다. 한국 사회의 특징적이고 대중적 활동인 '배달'을 미술과 연결함으로써 나타나는 다양한 양상을 조망하고자 한다. 전시에서 배달은 물리적인 이동뿐만 아니라 디지털 환경에서의 전송, 예술의 유통, 소통과 교류 등 미술과 사회의 시의적 접점을 짚어내는 매개가 된다.



문신(文信) : 우주를 향하여

기간 2022.9.1-2023.1.29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 1, 2, 3, 4전시실

인생 대부분을 이방인으로 살았던 문신의 삶은 그가 시시각각 변하는 유행, 편협한 당파와 민족주의를 넘어 진정한 창작을 가능하게 만든 동력이었다. 문신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회고전은 그 예술의 다양한 지형을 탐색하고 이방인으로서 그가 지녔던 자유와 고독, 긴장, 다름이 동시대 우리에게 던지는 자극을 경험하는 장을 제공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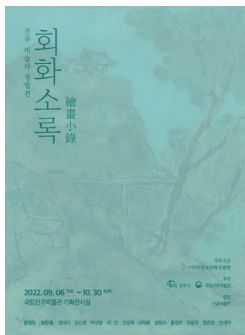


대한제국 첫 궁중 연회

기간 2022.9.6-12.25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 2층 서화관 서화실

1901년(신축년) 음력 5월, 대한제국 황실의 어린 효정왕후의 71세를 경축하는 궁중 연회 진찬進饌이 경운궁에서 열렸다. 여러 날에 걸쳐 열린 연회 중, 다섯 행사의 장면을 그린 병풍을 <신축진찬도>라고 한다. 1897년 대한제국 선포 후 처음으로 열린 궁중 연회를 그린 <신축진찬도>는 황제의 나라 위상에 맞는 기물과 복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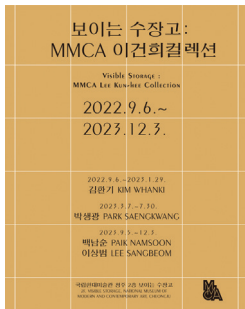


회화소록繪畵小錄

기간 2022.9.6-10.30

장소 국립진주박물관 기획전시실

진주의 미술사 정립을 위해 (사)진주목문화사랑방에서 주관하는 첫 번째 전시이다. 본 전시는 해방 전후 진주를 기반으로 활동했던 근현대 작가들의 작품들을 소개하여 진주미술의 태동과 움직임에 주목하고, 지역 화단의 형성과 전개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진주미술의 정체성과 한국 미술사에서의 위치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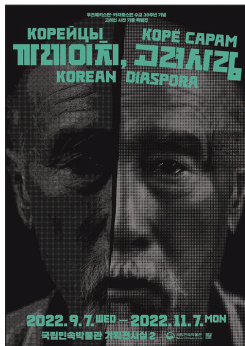


보이는 수장고 : MMCA 이견희컬렉션 1

2022.9.6-2023.12.3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2층, 보이는 수장고

국립현대미술관 청주의 '보이는 수장고'는 유리창을 통해 수장고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수장'과 '전시'의 기능을 모두 아우르는 새로운 개념의 미술품 수장고이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쾌적한 작품감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이는 수장고' 공간을 재조성하고 그 첫 번째 작품으로 'MMCA 이견희컬렉션' 중 한국미술 속 주요 작가들의 대표작을 총 3회에 걸쳐 소개한다.



까레이치, 고려사람

기간 2022.9.7~11.7

장소 국립민속박물관 기획전시실2

국립민속박물관은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 및 카자흐스탄 간의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사진작가 빅토르 안이 기증한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일상 사진을 바탕으로 특별전을 연다. 전시된 사진 속 고려인의 일상에서는 현지의 주류 문화와 고려인 공동체가 유지해 온 오랜 전통, 그리고 조국의 영향들 사이에서 중첩된 정체성을 형성한 고려인의 자화상을 발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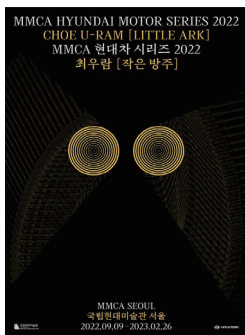


다시, 연결 : 모두가 안전해질 때까지

기간 2022.9.8~2023.1.31

장소 대한민국역사박물관 3층 전시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인류의 문명과 함께해온 감염병의 역사를 돌아보는 전시이다. 인류가 경험해온 감염병을 다양한 자료와 더불어 화려하고 생동감 있는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해 보여준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드러난 인류 사회의 취약성을 살펴보고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전 지구적인 '연대와 협력'의 메시지를 관람객들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MMCA 현대차 시리즈 2022: 최우람 - 작은 방주

기간 2022.9.9~2023.2.26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지하층, 서울박스, 5전시실 및 복도

최우람 작가의 기존 작업에 내재해 있던 질문들을 전면에 내세우며,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을 재구성한 하나의 공연 형식으로 기획된 전시이다. 작가는 방주라는 주제의 전시를 만들고 동시대를 구성하는 모순된 욕망을 병치시켜 관람객들과 오늘 우리의 방향성을 함께 고민하고 질문하는 장을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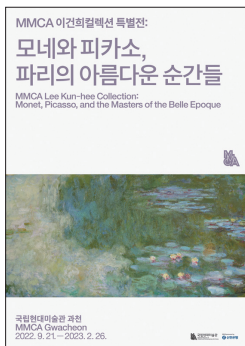


다다익선: 즐거운 협연

기간 2022.9.15~2023.2.26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6전시실

오랫동안 꺼져 있던 국립현대미술관의 대표 소장품, 백남준의 〈다다익선〉(1988)을 대대적으로 복원해 다시 켜는 것을 기념한 아카이브 전시이다. 전시는 〈다다익선〉의 제작 배경과 그 이후 현재까지 작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아카이브, 그의 작품세계와 관련 자료를 새롭게 해석한 작가들의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MMCA 이진희컬렉션 특별전: 모네와 피카소, 파리의 아름다운 순간들

기간 2022.9.21-2023.2.26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1원형전시실

2021년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된 이진희컬렉션에 포함된 마르크 샤갈, 살바도르 달리, 카미유 피사로, 클로드 모네, 폴 고갱, 피에르 오귀스트 르누아르, 호안 미로의 회화 7점과 파블로 피카소의 도자 90점을 소개하는 전시이다. 이번 전시는 여덟 명의 거장이 파리에서 맺었던 다양한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의 작품을 감상하도록 구성했다.



백제 귀엣-고리 :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기간 2022.9.27-2023.2.26

장소 국립공주박물관 기획전시실

국립공주박물관의 이번 특별전은 무령왕과 왕비 귀걸이를 비롯한 백제 귀걸이를 한 자리에 최초로 전시하고, 또한 신석기 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아우르는 귀걸이 등을 아울러 선보인다. 본 전시는 백제 귀걸이의 아름다움과 그것을 만든 사람과 소유자의 마음을 조명하고자 한다.



야금: 위대한 지혜

기간 2022.9.30-12.11

장소 국립김해박물관 기획전시실

국립김해박물관과 국립청주박물관, 삼성문화재단의 주관으로 열리는 특별전이다. 이번 전시는 인류 문화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야금 기술과, 금·은·동·철에 스며있는 인간의 위대한 지혜와 예술성을 조명하고자 마련되었다.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일상에서 예술까지 우리 삶에 배어 있던 야금의 모습을 새롭게 발견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



고대 영산강 사람과 동물

기간 2022.9.30-2023.2.5

장소 국립나주박물관 기획전시실

국립나주박물관은 전라남도도와 함께 고대 영산강유역에 살았던 사람과 동물, 그리고 그 속에 담겨진 의미를 소개하는 기획특별전이다. 이번 전시를 통해 고대 영산강유역에서 더불어 살았던 사람과 동물에 대하여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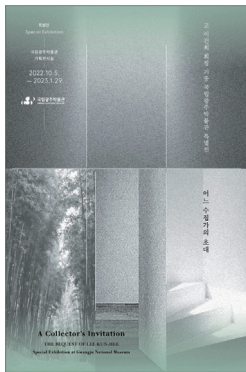


백제 기술, 흙에 담다

기간 2022.10.1~2023.1.29

장소 국립부여박물관 기획전시실

국립부여박물관은 2022년 백제의 테크놀로지(技術)를 조명하는 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흙'이라는 재료에 주목하여 백제인의 흙 다루는 기술과 소조상의 예술성, 그리고 흙을 매개로 주변 국가와 교류한 내용을 담았다. 전시에 담은 백제인의 수준 높은 흙 다루는 기술과 예술성을 함께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이건희 회장 기증 국립광주박물관 특별전 '어느 수집가의 초대'

기간 2022.10.5~2023.1.29

장소 국립광주박물관 기획전시실

고 이건희 회장 기증을 기념하는 이번 국립광주박물관 특별전은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어느 수집가의 초대'를 바탕으로 국립중앙박물관 이건희 기증품을 엄선하여 한국 전통 미술의 진수를 보여주는 전시로 새롭게 구성되어 선보인다. 국립중앙박물관 이건희 기증품의 첫 지역 나들이인 이번 특별전에서 전통을 보는 수집가의 안목과 취향을 함께 즐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



명기명器, 예禮를 담다

기간 2022.10.5~2023.10.9

장소 국립대구박물관 상설전시관

대구·경북지역에서 출토된 백자 명기와 깨문거리를 통해 조선시대 사대부의 상장례 문화를 조명하고자 마련된 국립대구박물관 테마전이다. 이번 전시를 통해 조선시대의 상장례 문화를 이해하고, 삶과 죽음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근대 한글 연구소

기간 2022.10.7~2023.1.29

장소 국립한글박물관 기획전시실

한글의 예술 및 산업 콘텐츠로서의 가치를 조명하는 기획특별전인 한글실험프로젝트의 제4회 전시이다. 국립한글박물관의 근대 한글 관련 소장품을 시각과 공예, 패션, 음악, 영상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예술 창작의 소재로 활용한 전시품을 선보인다. 이를 통해 한글디자인 창작의 장으로서의 박물관의 역할을 확장하고 한글 문화의 지평을 확대하고자 한다.



갓 쓰고 米國에 公使 갓든 이약이

기간 2022.10.14-12.13

장소 국립고궁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

한·미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여 외교·통상 분야 신규 국가등록문화재 활용·공개하는 국립고궁박물관의 기획전이다.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된 『미국공사왕복수록』과 『미국서간』은 최초로 미국 주재 외교 사절로 파견된 공사관의 외교 활동에 관한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다. 전시를 통해서 상투에 갓 쓰고 미국 땅을 밟았던 이들의 이야기를 기억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



임옥상, 여기 일어서는 땅

기간 2022.10.21-2023.3.12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지하1층, 6·7전시실 및 전시마당

리얼리즘 미술에서 출발, 대지미술, 환경미술까지로 미술영역을 넓힌 작가 임옥상의 현재 활동과 작업을 집중 조명하고자 기획된 전시이다. 대규모 설치작 6점을 포함하여 총 40여 점의 작품과 130여 점의 아카이브가 전시에서 소개된다. 서울관 내 장소특정적 조건과 상황을 활용해 새롭게 선보이는 신작들은 작가의 예술세계 전반을 새롭게 조명한다.



합스부르크 600년, 매혹의 걸작들 - 빈미술사박물관 특별전

기간 2022.10.25-2023.3.1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

국립중앙박물관은 한국과 오스트리아 수교 130주년을 기념하여 오스트리아 빈미술사박물관 대표 소장품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15-20세기까지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가 수집한 르네상스, 바로크미술 시기 대표 소장품을 통해 오스트리아의 역사와 문화를 조명한다.



미물지생 微物之生, 옛 풀벌레 그림 속 세상

기간 2022.10.25-2023.1.25

장소 국립춘천박물관 기획전시실

개관 20주년을 맞아 국내 최초로 초충도를 주제로 하여 열린 특별전이다. 전시에는 정선, 김홍도가 그린 초충도와 신사임당이 그렸다고 전해지는 초충도 병풍 등을 만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옛사람들이 바라본 풀벌레의 세계를 조명하여 풀벌레의 여러 동작을 잘 살려 그려야 한다는 옛 화가들의 생각을 담아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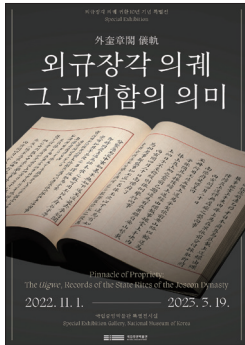


영남의 명찰순례Ⅱ: 은해사

기간 2022.11.8~2023.2.19

장소 국립대구박물관 기획전시실 I·II, 중앙홀

국립대구박물관이 영남의 명찰순례 두 번째 시리즈로 개최하는 특별전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은해사 괘불(보물), 아미타삼존도와 같은 대형불화를 비롯하여 회화, 공예품, 목판 등 350여 점의 전시품이 소개된다. 이를 통해 은해사의 역사를 조명하는 동시에 사람과 암자, 사찰이 위치한 팔공산이라는 공간을 보여주고자 한다.



외규장각의궤, 그 고귀함의 의미

기간 2022.11.1~2023.3.19.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 특별전시실(121호)

외규장각 의궤가 프랑스로부터 돌아온 지 10년만에 의궤 속에서 찾아낸 여러 이야기들을 소개하는 전시이다. 의궤는 조선시대의 중요 국가 행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히 기록한 책으로 조선 시대 역사의 문화적 자산이다. 의궤 속에 담긴, 예법禮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이끄는 품격 있는 통치로 가는 길을 관람객들이 확인하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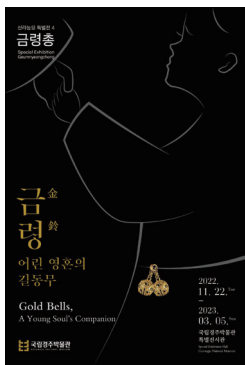


국립중앙박물관 청자실 개편

기간 2022.11.22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 3층 조각공예관 청자실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 가운데 새롭게 단장한 청자실이 공개된다. 이번 개편은 고려청자의 독특한 아름다움과 더불어 제작 기법과 쓰임새, 도자기 제작의 시작과 완성이라는 문화사적인 의의까지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도자 조각 등 여러 자료를 활용하여 고려 청자를 다각적인 관점에서 조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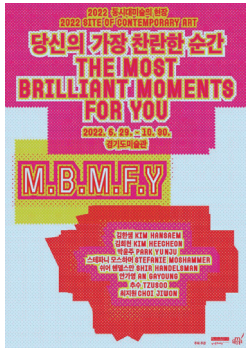
금령총: 어린 영혼의 길동무

기간 2022.11.22~2023.3.5

장소 국립경주박물관 특별전시관

1924년 금령총의 첫 발굴과 2018~2020년 재발굴 조사의 성과를 정리하여 기획된 특별전이다. 금령총의 묘주와 관련된 관과 깨문거리용 상자의 유물뿐만이 아니라 근래 호석 주변에서 발견된 제기祭器와 향아리 등을 선보이며 금령총 재발굴이 지니는 의의와 성과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공립박물관, 미술관〉



당신의 가장 찬란한 순간

기간 2022.6.29-10.30

장소 경기도미술관 전시실 3·4

디지털 네이티브 작가들의 작업을 중심으로 온라인 위의 삶에 익숙한 세대의 일상에 새롭게 등장한 다양한 욕망을 살펴보고자 기획된 전시이다. 이 전시는 관람객이 '온라인 위의 삶'을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마주침'으로써 쾌락의 정점을 모른 채 욕망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시간이 과연 '당신의 가장 찬란한 순간'이 될 수 있는지 역설적으로 질문하고자 한다.



애도: 상실의 끝에서

기간 2022.6.30-9.12

장소 전남도립미술관 1-4전시장, Box2

질병과 기후 위기, 전쟁 등으로 인한 사람, 삶의 터전 등의 상실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애도의 과정을 추적하는 전시이다. 과거의 충격이 현재로 이어지는 트라우마의 경험은 심리적 고통을 극복하기 위한 승화의 과정으로 이어진다. 이번 전시에서 소개하는 작품들은 이러한 상실의 과정을 애도하고 현재를 살아가기 위한 승화의 결과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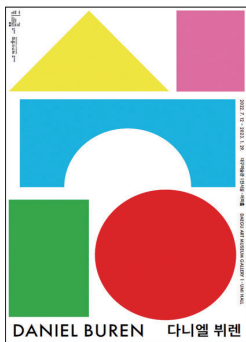


서울 최초의 도시공원, 탑골공원

기간 2022.7.22-2023.3.19

장소 서울역사박물관 공평도시유적전시관 기획전시실

탑골공원의 최초 조성 목적은 대한제국기 한양의 근대화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근대 여가 문화를 알리고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시민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는 탑골공원의 모습은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이번 전시를 통해 도시공원으로서의 탑골공원의 역할과 의미를 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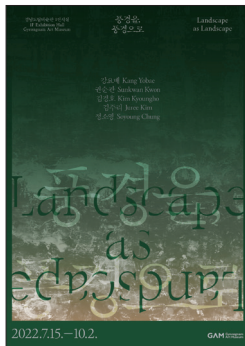


다니엘 뷔렌

기간 2022.7.12-2023.1.29

장소 대구미술관 1전시실 및 에미홀

국내 국공립미술관으로는 최초로 개최하는 뷔렌의 개인전이다. 뷔렌은 모더니즘적 미술 제도를 비판하거나 고정된 시각을 유발하는 미술사조의 틀을 거부하며 자신의 작업 세계를 구축하며 창의적이고 실험적이며 비판적인 논리를 추구하였다. 전시를 방문하는 관람객들이 뷔렌의 단호하고 정제된 작품을 통해 예술의 본질에 대해 사색할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풍경을, 풍경으로

기간 2022.7.15-10.2

장소 경남도립미술관 1전시실

강요배, 권순관, 김경호, 김주리, 정소영과 같이 시대의 초상을 치열하게 탐색하는 5인의 작가가 담아낸 풍경을 선보이는 전시이다. 그들의 풍경으로, 전시는 현현하는 자연을 새롭게 인식하고 그 이면에 감춰진 서사를 들춰내어 생태적·사회적 공동체의 윤리 회복을 위한 사유를 제안한다.



모든 것은 서로를 만들어 나간다

기간 2022.7.15-2023.3.12

장소 부산시립미술관 본관 2층 소전시실

부산미술을 도시 부산의 출현과 성장의 역사 속에서 새롭게 꿰어보며 소장품을 중심으로 역사 인식과 그 기술 가능성을 실험하는 소장품 기획전이다. 전시에서는 부산의 역사와 부산미술을 관계 지어보는 4개의 주제 하에 작품이 선보인다. 이를 통해 한국근현대사 전개 양상 속에서 부산의 특수한 역사를 파악해 보려는 시도한다.



아카이브전 《광주시립미술관 30년의 역사》

기간 2022.7.19-11.20

장소 광주시립미술관 본관 1층 로비

《광주시립미술관 30년의 역사》는 광주시립미술관의 30여년 동안 활동한 개략적인 발자취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아카이브 전시이다. 이번 전시는 광주시립미술관의 30여년의 역사를 연혁, 전시, 교육, 창작지원, 분관 등의 5개 활동 분야로 분류, 전시하여 미술관의 다양한 활동의 역사를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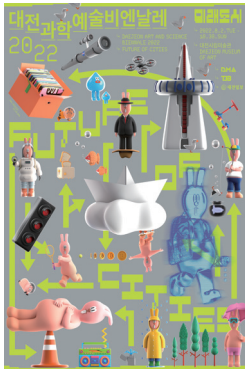


백남준 탄생 90주년 특별전 "바로크 백남준"

기간 2022.7.20-2023.1.24

장소 백남준아트센터 제2전시실

백남준 탄생 90주년을 맞이하여, 국내에서 접하기 힘들었던 대규모의 미디어 설치작업과 레이저 작업을 중심으로 구성된 전시이다. 아날로그 비디오를 임의적 조합에 따라 물질적 공간에 직접 투사하여 퍼포먼스와 같은 일회성의 시공간적 경험을 만들어내는 그의 작품을 전시에서 만나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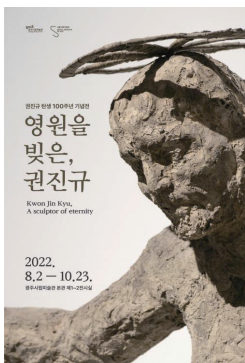


대전과학예술비엔날레 2022 : 미래도시

기간 2022.8.2-10.30

장소 대전시립미술관 1-5전시실, 대전창작센터

대전이라는 도시의 정체성과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확장시키기 위해 기획된 원도심 프로젝트이다. 도시 간 네트워크, 새로운 도시문화 등을 표현한 예술작품을 공모하여 총 6작가(팀)를 선정하였으며 도시의 미래, 환경, 인류세에 대한 예술적 담론을 다채로운 시각으로 형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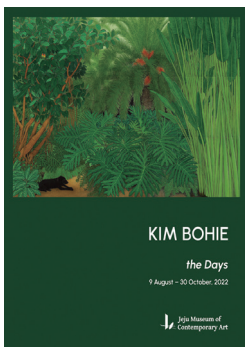


권진규 탄생 100주년 기념전 '영원을 빛은, 권진규'

기간 2022.8.2-10.23

장소 광주시립미술관 본관 제1, 2전시실

권진규 생애 전반에 걸쳐 제작한 작품 120여 점과 아카이브, 드로잉 50여 점을 선보이는 회고전이다. 작가의 작품 활동 시기별 세 색션으로 구분하여 작가의 작품세계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시장 일부에서는 작가가 구상하였던 것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마케트(밀그림용 모형 조각상), 작가의 작품 제작 과정을 보여주는 시연 영상 등을 마련하였다.



김보희 《the Days》

기간 2022.8.9-10.30

장소 제주현대미술관 제 1, 2기획전시실, 상설전시실, 특별전시실

제주현대미술관에서 한국현대미술작가 조명전의 일환으로 기획한 전시이다. 한국화가 김보희는 생명에 대한 경의를 바탕으로 자연과 일상의 순간을 독자적인 조형 언어로 펼쳐왔다. 이번 전시는 50여 년에 걸친 김보희의 작업 여정 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보희의 대표적인 자연과 풍경 연작이 주를 이룬다.



우리가 마주한 찰나

기간 2022.8.9-11.6

장소 수원시립미술관

수원시립미술관을 포함한 총 10곳의 국공립미술관 소장품을 매개로 우리가 지나쳐왔던 찰나들을 새롭게 마주해보는 전시이다. 크게 '자연'과 '인간', '그 너머'를 주제로 하여 인간이 생활하는 자연과 일상·사회현실, 인간의 내면과 예술에 관한 사유를 담은 작업 세계를 소개한다.



문양으로 보는 하늘·땅·사람

기간 2022.8.11~9.4

장소 한성백제박물관 기획전시실

한성백제박물관은 다양한 기증 문화재 가운데 문양이 돋보이는 고구려 고분벽화 모사도, 청동거울, 기뢰, 화상전, 도자기 등 한국과 중국의 자료 150여 점을 선별하여 한 자리에 모았다. 동아시아 전통 사상인 천지인, 즉 하늘·땅·사람을 주제로 한 다양하고 독특한 문양을 소개하는 이번 전시를 통해서 색다른 문화를 체험하길 바란다.



書齋三詠, 향로·화분·베개

기간 2022.8.24~11.27

장소 고려청자박물관 기획전시실

고려시대에 문인들의 생활공간인 서재를 장식했을 청자 향로, 화분, 베개를 대상으로 당시 문인들이 각 기물에 어떠한 의미와 바람을 담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기획된 전시이다. 고려시대 청자는 물론 당시 중국 수입 도자기를 비롯하여 신안 해저에서 출수된 향로와 화분까지 60여 점이 전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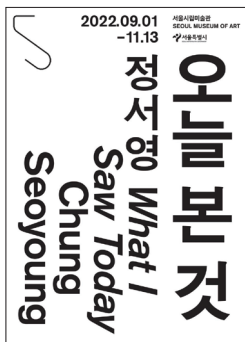


춤추는 낱말

기간 2022.9.1~11.20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2, 3층 전시실

본 전시는 '시(poetry)'를 성찰하며, 전시를 한 편의 시로서, 창작자들의 실천을 공동의 심상(정동)을 자아내는 시어로 바라볼 것을 제안한다. 이번 전시는 군중의 노래이자 저항의 언어로서 시의 속성을 아시아에 기반을 두고 혹은 아시아를 둘러싼 논의에 천착해 온 창작자들의 실천에 포개어 본다.



오늘 본 것

기간 2022.9.1~11.13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1층 전시실

1990년대에 현대 조각의 동시대성을 견인한 작가로 평가되는 정서영은 현재까지 조각을 포함한 드로잉, 사운드, 영상, 퍼포먼스 등 다양한 매체와 영역에서 유연하게 조각의 문제를 다루는 예술적 실험을 지속해 오고 있다. 이번 전시는 조각가 정서영이 1993년부터 제작, 발표한 주요 작품들과 신작 9점을 포함한 총 33점을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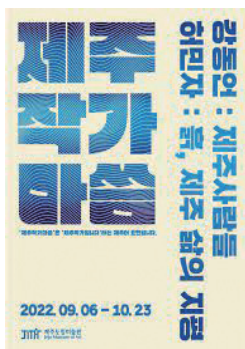


2022 부산비엔날레-물결 위 우리

기간 2022.9.3-11.6

장소 부산현대미술관, 부산항 제1부두

2022부산비엔날레는 근대 이후 부산의 역사와 도시 구조의 변천 속에 새겨진, 또 감추어진 이야기를 돌아보고, 이를 전 지구적 현실과 연결 지어 바라보고자 한다. 전시는 이주, 노동과 여성, 도시 생태계, 기술 변화와 공간성을 중심축으로 삼아 부산의 구체적인 사건과 상황을 참조하고 이에 연결되는 다른 지역의 이야기를 함께 살핀다.



제주 작가 마춤

기간 2022.9.6-10.23

장소 제주도립미술관 기획전시실 1, 2

제주 화단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공헌한 원로·중견작가들의 작품세계를 개괄하고 더 나아가 제주 미술의 역사와 발전 방향을 조망하는 전시이다. 본 기획 전시에는 제주를 주제로 각 장르에서 독자적인 작품세계를 구축한 한국화가 '강동연'과 도예가 '허민자'의 작품들을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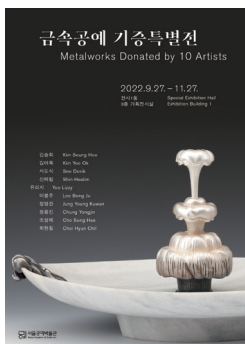


에도시대 스미다 강의 도시풍경

기간 2022.9.7-10.23

장소 서울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

도쿄의 도시하천인 '스미다 강'은 수도의 중심을 흐르면서 오랜 역사를 함께 한 점에서 한강과 그 의미와 위상이 유사하다. 본 전시는 일본의 수도 도쿄(에도)의 도시 발전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스미다 강을 배경으로 한 우키요에 160여 점을 통해 에도시대 일본의 도시풍속과 생활문화를 소개한다.



금속공예 기증특별전

기간 2022.9.27-11.27

장소 서울공예박물관 전시 1동 3층 기획전시실

서울공예박물관이 개관 이후 각계각층으로부터 기증받은 금속공예 자료를 모아 개최한 첫 번째 기증특별전시이다. 현대 금속공예 발전에 헌신한 유리지 작가의 기증 작품 327점 외에 9인의 작가가 기증한 작품이 소개된다. 오랜 숙련과 예술혼으로 완성된 금속공예가의 작품을 감상하고 아름다운 기증의 뜻을 함께 나누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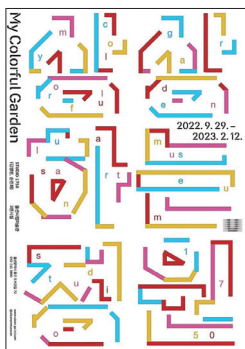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순회전 《미술로, 세계로》

기간 2022.9.29~2023.1.1

장소 포항시립미술관 1~4전시실 및 초헌장두건관

국립현대미술관의 공립미술관 협력전시의 일환으로 선보이는 순회전로 1980~90년대에 수집된 국립현대미술관 국제미술 소장품의 수집 활동과 전개를 살펴보는 전시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세계 전역을 아우르는 해외 작가 87명의 조각, 회화, 판화, 드로잉 등 95점을 선보인다. 관람객들이 장기간 공개되지 않았던 국립현대미술관 국제미술 소장품을 재발견하기를 희망한다.



상상하는 정원

기간 2022.9.29~2023.2.12

장소 울산시립미술관 3전시실

울산시립미술관이 마주한 울산 동헌의 풍경에서 모티브를 가져와 기획된 전시이다. 설치미술 작가 STUDIO 1750은 전시장의 커다란 창을 통해 들어오는 동헌의 뜰의 모습을 토대로 미술관의 전시공간을 재해석하였다. 작품의 주된 조형요소인 '빛'과 작가의 상상력이 빛어낸 전시를 거닐다 보면 동헌과 미술관이 안겨주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것 같은 여정을 체험할 수 있다.



열린수장고 개관전 : 예술의 자리

기간 2022.10.4~2023.3.31

장소 대전시립미술관 열린수장고

대전시립미술관 열린 수장고 개관전으로 대전시립미술관의 소장품 73점을 공개하는 전시이다. 대전시립미술관의 '열린수장고'에서는 관람객이 소장품이 보관된 수장대에 근접할 수 있어 개방형 수장고 중에서 가장 능동적으로 작품을 감상하고 즐길 수 있다.



이건희컬렉션 한국 근현대미술 특별전 [사람의 향기, 예술로 남다]

기간 2022.10.4~11.27

장소 광주시립미술관 본관 제3~6전시실

국립현대미술관이 추진하는 이견희컬렉션 지역 순회 프로그램 일환으로 준비한 전시이다. 2021년 4월에 기증된 고(故) 이견희 삼성그룹 회장의 소장품 가운데 국립현대미술관, 대구미술관, 전남도립미술관 그리고 광주시립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이견희컬렉션 작품을 선보인다.



독서대왕 정조의 글과 글씨

기간 2022.10.6-2023.1.29

장소 수원화성박물관 기획전시실

정조의 탄생 270주년을 기념하여 수원화성박물관에서 10여 년간 수집한 정조의 글과 글씨를 엄선해 소개하는 전시이다. 이번 전시를 통해 어려서부터 유난히 책을 사랑하며 학문정치를 추구했던 정조의 삶과 철학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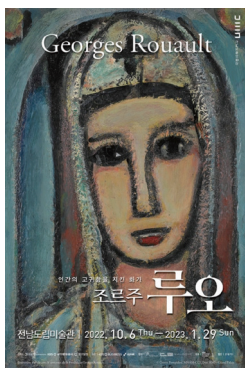


예술과 산업

기간 2022.10.6-2023.1.29

장소 울산시립미술관 1, 2전시실

예술과 산업의 수평적 공유 사례를 문화사적으로 연구 및 기술하는 프로젝트다. 기업이 원하는 경제적 가치와 예술이 원하는 예술적 가치, 둘 다를 성취한 성공적 협업 사례를 선보임으로써, 이번 전시는 예술과 산업이 상생하는 수평적 융합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보여주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인간의 고귀함을 지킨 화가 조르주 루오

기간 2022.10.6-2023.1.29

장소 전남도립미술관 1-4 전시실

20세기 현대미술 화가 조르주 루오의 생애와 예술성을 조명하는 전시이다. 조르주 루오의 대표 판화 작품 〈미제레레〉를 비롯하여 회화와 도자기, 태피스트리, 스테인드글라스 등의 작품을 중심으로 소개된다. 사회적 약자들의 내면 깊을 곳을 바라본 루오의 독창적인 작품세계를 통해 인간을 향한 연민과 함께 자유롭고 힘찬 선의 울림과 깊은 색채 표현을 느껴보길 기대한다.



집안의 보물, 후세에 전하다-아산세거 풍산홍씨 유물전

기간 2022.10.14-11.27

장소 **오양민속박물관**

아산 세교리에 자리 잡은 풍산홍씨 가문은 300여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집안의 물건을 대대손손 소중히 보관해 왔다. 아산 세거 풍산 홍씨 집안의 이야기가 담긴 유물들을 통해 각 집안의 물건들이 지역의 자랑스러운 문화재가 되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 역사의 소중한 기록으로 남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왕도 한성, 풍납동 토성과 몽촌토성

기간 2022.10.27~2023.1.29

장소 한성백제박물관 기획전시실

한성백제박물관 개관 10주년 및 몽촌토성 발굴 40주년을 기념하여 백제 왕도 유적 출토 유물과 관련한 자료 400여 점이 전시된다.



제22회 이인성미술상 수상자전 《유근택: 대화(Dialogue)》

기간 2022.11.1~2023.1.15

장소 대구미술관 2,3전시실, 선릉가든

대구미술관은 제22회 이인성미술상 수상자로 선정된 유근택의 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유근택의 시대별 대표 작품 및 이인성상 수상을 계기로 새로 제작한 신작으로 전시를 구성하여 시간에 따른 작품의 변화를 보여준다. '존재의 시간과 소멸에 대한 서사적 질문'이라는 주제를 일관되게 다뤄온 유근택의 예술세계를 대중에게 새롭게 각인시키는 전시가 될 것이다.



서울살이와 집

기간 2022.11.4~2023.4.2

장소 서울생활사박물관 기획전시실

6.25전쟁 이후 더 나은 삶을 위해 상경하는 인구의 증가에 따라 서울은 사람들이 살 집이 부족해졌다. 많은 사람들이 살 집을 만들려는 노력, 쾌적한 공간과 생활을 향한 열망, 서구 문화에 대한 동경은 서울에 다양한 형태의 집을 만들어냈다. 본 전시는 1950년대 말과 1970년대 말의 어느 평범한 서울 사람의 집 모습과 그 안에서 이루어졌던 우리 이웃의 삶을 보여준다.



탄생 100주년 기념전 《김형구 : 盡心, 삶이 위대한 예술》

기간 2022.11.15~2023.2.12

장소 대전시립미술관 3, 4전시실

이번 전시는 한국구상미술의 1세대 김형구 화백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작가의 작품세계를 조명하고 한국 구상미술의 계보를 가늠해 본다. 김형구는 자연이나 주변의 인물들을 사실적 필치로 그려내며 한국 구상미술의 중심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 이번 전시에서는 그의 작품과 대전시립미술관에 기증한 대표작들을 포함 총 90여점을 만나 볼 수 있다.

〈대학박물관 및 사립박물관, 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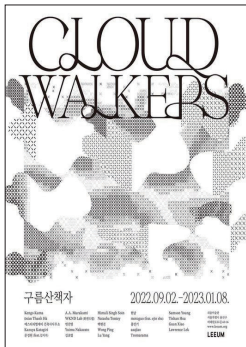


등운산 고운사

기간 2022.8.26~11.27

장소 불교중앙박물관

고운사와 소속 말사의 성보를 엄선하여 개최되는 특별전이다. 전시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로서 가치가 충분한 성보, 최근 고운사로 돌아온 1701년작 〈아미타불회도〉, 조선시대 왕실의 원당인 연수전과 관련된 자료, 그리고 영남 북부지역의 대표적인 불화인 〈영주 부석사 오불회 괘불〉, 〈안동 봉정사 영산회 괘불〉, 〈봉화 축서사 괘불〉을 관람객들에게 선보인다.



구름산책자

기간 2022.9.2~2023.1.8

장소 리움미술관 아동교육문화센터

이 전시는 구름/클라우드를 기후적, 공상적, 하이퍼링크적 의미를 두루 함의하며, 21세기의 새로운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한 은유이자, 지정학적 경계를 횡단하는 가상의 플랫폼으로 제시한다. 전시에 참여하는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은 지속가능한 공존을 위한 연구와 실천을 전개하고, 시공을 넘나드는 이상하고 무한한 상상을 펼쳐며, 현실/가상이 교차하는 새로운 공감각적 세계를 경험하게 한다.



여월지항如月之缸: 박영숙 백자

기간 2022.9.2~11.20

장소 리움미술관 M2 2층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도예가 중 한 사람인 박영숙의 백자 전시이다. 이 전시는 조선 시대 중엽에 제작된 백자 기형인 '달항아리'를 통해 전통 공예와 현대미술을 잇고, 미술의 매체로서 백자의 가능성을 탐색해 간 박영숙 작가의 작품세계에 주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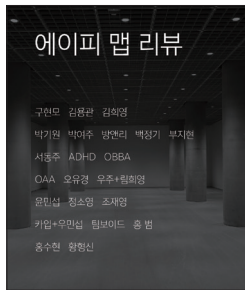


공예지금

기간 2022.9.2~2023.1.29

장소 리움미술관 M1

전통을 기반으로 한 현대 공예의 다채로운 확장성에 주목한 전시이다. 전통을 기반으로 한 현대 공예 작가들의 작품을 비롯해 현대 디자이너와 전통 장인의 협업으로 완성된 혁신적인 작품들을 총별로 선보인다. 본 전시는 지금도 여전히 진행중인 한국 공예의 확장된 스펙트럼을 전통의 선상에서 재해석하고 현대인의 감성으로 보고 즐길 수 있도록 준비되었다.



apmap 2022 seoul – apmap review

기간 2022.9.29-12.18

장소 아모레퍼시픽 미술관 1-7전시실, B1 로비 등

용산 아모레퍼시픽미술관에서 처음 열리는 한국 현대미술작가 단체전시이자 야외설치 현대 미술 프로젝트인 '에이피 맵(apmap)' 시리즈의 여덟 번째 전시이다. 지난 일곱 번의 전시를 결산함과 동시에 아모레퍼시픽미술관이 젊은 작가들과 야외에서 함께 달려온 시간을 되돌아보고 집대성한다.



상감-이질적인 것들의 어우러짐

기간 2022.7.26-10.15(1차)

2022.10.28-12.30(2차)

장소 호림미술관 신사분관

한국 공예 속 상감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상감이 가지는 의미를 과거의 문화유산에만 가두지 않고 오늘날까지 확장하고자 개최된 전시이다. 본 전시는 도자기와 금속공예품, 목공예품에서의 상감기법을 소개하고 더 나아가 이질적인 요소를 조화시키는 상감의 창작방식을 계승한 현대 작가의 작품들을 선보인다.



붓을 물들이다: 근역화휘와 조선의 화가들

기간 2022.10.1-2023.1.31

장소 서울대학교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

〈근역화휘〉는 서울대학교박물관의 대표 소장품으로 위창 오세창 선생이 조선시대 화가들의 작품을 한 점씩 수집하여 편집한 화집이다. 일제강점기에 사라져가는 우리 미술문화를 보존하고 후세에 전하고자 그림을 모으고 책으로 펴낸 오세창 선생의 뜻을 일깨우며 산수, 사군자, 영모, 화훼·초충 등 조선시대 화가들의 다양한 예술세계를 만나길 기여다.

〈2022년 박물관 교육 국제 심포지엄: 모두를 위한 박물관 공간 조성 교육〉

일시 2022.8.30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유튜브

주최 국립중앙박물관

• 기조발표

1. 모두를 위한 박물관의 역할과 교육
- 김인회(전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1부

1. 모두를 위한 박물관의 디자인과 서비스
- 고영준(서울과학기술대학교 디자인학과 교수)
2. 시각장애인의 박물관 전시품 다중감각 체험
- 조준동(성균관대학교 휴먼ICT융합학과 교수)
3. 시각장애 학습자의 역사문화 교육과 박물관 방문
- 이진석(국립서울맹학교 교사)

• 2부

1. 청각장애 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수업과 박물관 교육
- 장현숙(한림대학교 언어청각학부 교수)
2. 고령사회 노년층의 박물관 참여와 웰빙
- 이지원(국립경주박물관 학예연구사)
3. 그르노블 미술관(Musée de Grenoble)의 장애를 가진 관람객 맞이하기
- 플레어 모아로·베아트리스 마이오(프랑스 그르노블 미술관 장애인 교육 담당자)
4. 장애 어린이와 가족을 포용하는 박물관 만들기
- 사만다 보웬(영국 'Send in Museums' 활동가)

〈2022년 국립대구박물관 학술심포지엄: 회혼례도의 문화사적 이해〉

일시 2022.9.1

장소 국립대구박물관강당, 공식 유튜브

주최 국립대구박물관

• 1부: 회혼례와 회혼례도첩

1. 〈회혼례도첩〉의 회화사적 성격과 의미
- 장진아(국립대구박물관)
2. 고문헌으로 살펴본 회혼례 기록 연구
- 정대영(국립대구박물관)

• 2부: 회혼례도첩 속 복식과 기물

1. 〈회혼례도첩〉속 등장인물의 복식 고찰
- 이은주(안동대학교)
2. 국립대구박물관 소장 〈회혼례도첩〉에 재현된 병풍의 의미
- 김수진(성균관대학교)
3. 〈회혼례도첩〉과 조선시대 한수·축수용 술잔
- 윤효정(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 3부: 회혼례도첩의 과학적 분석

1. 〈회혼례도첩〉의 제작기법 연구
- 박승원, 신용비(국립중앙박물관)
2. 〈회혼례도첩〉의 원형복원 모사 연구
- 정두희(영남대학교)

〈2022 한중일 국제 심포지엄: 도시 박물관과 미래 전략〉

일시 2022.9.5

장소 서울역사박물관 아주개홀

주최 서울역사박물관

• 1부: 도시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 전략

1. 도쿄의 도시 환경 변화에 대한 에도도쿄박물관의 대응
- 다나카 노부히로(에도도쿄박물관 부관장)
2. 서울역사박물관 주변의 환경 변화와 대응 전략
- 박상빈(청계천박물관장)
3. 넓고 긴 안목으로 유물을 감상하다: '박물관 도시'를 건설 중인 수도박물관
- 탄 샤오링(베이징수도박물관 부관장)

• 2부: 상설전시실 개편 사례 연구

1. 서울역사박물관 개관 20주년을 맞아 새롭게 개편한 상설전시실
- 김양균(서울역사박물관 전시과장)
2. 도시의 발전과 변화에 따른 박물관 건설에 대한 고찰 - 수도박물관 동관 건립을 중심으로
- 장 위(베이징수도박물관 동관건설추진주임)
3. 에도도쿄박물관 리뉴얼(2015)의 '에도에서 도쿄로' 전시의 의의
- 다키 료스케(에도도쿄박물관 전문조사원)

〈공존과 지속: 지능형 큐레이션 플랫폼〉

일시 2022.9.15

장소 경주 화백컨벤션센터

주최 국립중앙박물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1부

1. 박물관과 문화기술, 지속 가능한 공존을 위하여
- 장은정(국립중앙박물관)
2. CHIC(Cultural Heritage Intelligent Curation) 플랫폼 개발
- 이재호(한국전자통신연구원)
3. 지능형 큐레이션 플랫폼 개발 및 활용
- 신규철(SQI 소프트)

• 2부

1. 인공지능과 문화유산
- 최종원(중앙대학교)
2. 문화유산 3차원 스캔데이터의 보존·전시 활용방안과 가치
- 조영훈(국립공주대학교)
3. 문화유산 에셋의 생성과 활용: 문화유산기술연구소의 구축 사례를 중심으로
- 손태호(문화유산기술연구소)
4. 실감콘텐츠 데이터의 활용과 확장
- 고지현(국립중앙박물관)
5. 문화유산 관계 네트워크 가시화 기술 개발-국립중앙박물관 큐레이터 추천소장품 시각화를 중심으로
- 이종욱(한국전통문화대학교)
6. 개방형 수장고, 아카이브, 디지털 헤리티지
- 김윤정(국립민속박물관)
7. 문화유산 지식 기반 관계 생성을 위한 텍스트 마이닝
- 임희석(고려대학교)
8. 박물관 교육의 변화와 미래: 온라인 플랫폼 '모두(MODU)'
- 조해진(국립중앙박물관)

〈전환기의 미술과 매체의 변화〉

일시 2022.9.17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SEMA홀

주최 한국미술이론학회(주관), 한국미술사학회, 서양미술사학회,
한국미술사교육학회

• 1부

1. 기원전 7세기 대리석의 (재)발견과 '엘리트적 취향'의 시작:
초기 그리스 조각에서 대리석의 함의를 중심으로
- 김혜진(한국외국어대학교)
2. '바늘과 실의帝國' 唐代 皇權과 繡佛
- 소현숙(원광대학교)
3. 손안의 미술관: 프랑스 18세기 말-19세기 초 도록을 통해 본
사회적 기술로서 판화
- 김한결(중앙대학교)

4. 19세기 후반 유럽에서 제작된 문양도안집의 동양 요소와 산업화
- 송지호(고려대학교)

• 2부

1. 근대 경성의 사찰과 불화: 서울 흥천사 〈감로도〉(1939)
- 윤예지(국립중앙박물관)
2. 마이클 스노우의 뉴욕 시기 필름: 필름의 존재와 마주하기
- 김지혜(숙명여자대학교)
3. 매체로서의 회화: 환원과 확장
- 이지은(명지대학교)
4. 현실 인식을 위한 비판적 예술 실천: 소니아 보이츠(Sonia Boyce)의 작업에 표상된 인종주의와 흑인 여성의 문제
- 주하영(전남대학교)

〈2022 고려청자박물관 학술심포지엄: 고려 文人들의 청자 知好樂〉

일시 2022.9.23

장소 고려청자박물관 시청각실

주최 고려청자박물관

1. 고려시대 향문화香文化和 향로香爐
- 박지영(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2. 高麗靑瓷 有脚 四角·八角 器皿의 造形과 用途 考察
- 유진현(호림박물관)
3. 고려시대 청자 배개의 특징과 그 의미
- 김세진(문화재청 문화재감정관실)

〈현대미술사학회 제63회 추계학술대회〉

일시 2022.9.24

장소 웹엑스(Webex) 온라인 미팅룸

주최 현대미술사학회

• 1부

1. 현대미술에서의 배설 표현과 피터 부뢰힐의 〈네덜란드 속담〉
간의 연결성
- 강결(홍익대학교), 고경호(홍익대학교)
2. 조르주 바타유 '반건축' 개념과 베르나르 추미 건축론으로의 확장
- 김맑음(서울시 문화본부 박물관과)
3. 하위문화양식을 통한 브리콜라주 조형연구
- 한지현(홍익대학교), 고경호(홍익대학교)

• 2부

- 추상 이후의 구상: 1960년대~1980년대 한국미술의 신행상 담론
- 홍지석(단국대학교)
- 로버트 스미슨의 결정 구조 탐구와 시간의 형상: 1960년대 작업을 중심으로
- 정은영(한국국원대학교)
- 동물의 이미지 타자의 마음, 객체, 그리고 표상으로서의 고양이 읽기
- 백승환(부산대학교)
- 가상공간과 디지털 미술관의 정치학
- 신원정(신라대학교)

〈국립박물관 소장 일제강점기 자료의 공개와 활용
-발굴자료를 중심으로〉

일시 2022.9.29~9.30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

주최 국립중앙박물관·한국고고학회

• 9.29.

- 국립박물관 소장 일제강점기 자료 공개사업의 성과와 향후과제
- 양성혁(국립중앙박물관)
- 일제강점기에 조사된 신라 왕릉급 무덤의 활용과 인식
- 김대환(국립경주박물관)
- 일제강점기 대구 달성고분군 자료 공개와 활용
- 남익희(〔재〕세종문화재연구원)
- 일제강점기 고분 조사자료의 검토, 그리고 활용 - 백제 왕릉 최신 재조사 성과와 비교하여
- 김환희(백제왕도핵심유적보존관리사업추진단)
- 일제강점기 백제 사찰유적 조사와 후지사와 가조오
- 정현(국립중앙박물관)
- 일제강점기 가야 고분조사 자료 공개사업의 성과와 활용
- 배효원(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 일제강점기 낙랑고분 출토 토기의 재검토
- 이나경(국립춘천박물관)

• 9.30.

- 한국고고학자가 새로 쓰는 [조선고적조사보고] - 1911년도 고적조사의 재구성
- 정인성(영남대학교)
- 일본인 연구자가 바라본 일제강점기 자료 공개사업
- 요시이 히데오(교토대학교)
- 조선총독부의 고적조사사업과 (탈)식민주의
- 오영찬(이화여자대학교)

- 국립중앙박물관 일제강점기 자료 공개의 향후 사업에 대한 제언
- 이기성(한국전통문화대학교)

〈2022 국제공예 학술 심포지엄: 조선·근대기 백자 공예의 교류와 인식〉

일시 2022.10.14

장소 서울공예박물관 교육동 강당

주최 서울공예박물관·(사)한국미술사학회

• 1부: 조선 백자와 일본 백자

- 임란 전후 피랍 사기장을 보는 이중적 시각
- 방병선(고려대학교)
- 일본 하젠 도자 제작의 시작에 영향을 미친 조선 백자의 제작기술
- 카타야마 마비(일본 도쿄예술대학)

• 2부: 조선 백자의 탐미자

- 일본의 근대도예가의 작품에서 보여지는 조선백자의 영향
- 배수정(일본 시가현립도예의술포 도예관)
- 조선 백자의 시각적 기록과 전통의 성형(成形) - 조선미술전람회 정물화와 1940년대~70년대 잡지를 중심으로
- 고미경(서울공예박물관)

• 3부: 조선 백자의 인식과 시각

- 재조선 일본인 아사카와 형재와 조선백자
- 이상진(일본 아미나시예이와 대학)
- 무지(無知)에서 선망(羨望)으로: 서양인 조선백자 수집가에 관한 연구, 1880~2020
- 베스 맥킬롭(영국 빅토리아 앤 알버트 미술관)

〈중심과 주변의 미술사를 넘어서: '지역미술의 역사, 쟁점, 현안〉

일시 2022.10.15

장소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주최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 1부

- 대구 근대미술 다시보기: 재대구 일본인 미술가로 보는 근대 한일의 미술 교류
- 김지영(영남대학교)
- '교감 예술'을 통해 본 동아시아 현대미술 지형도: 수원 캄아트 그룹을 중심으로
- 임수영(독립기획, 미술사학)

3. 남농 허견(1908-1987)이 그린 작품의 변화 연구-대중의 오해와 작품의 재인식
- 박수홍(영암군립하정웅미술관)
4. '비주류'의 개념미술가, 성능경의 '망친'모더니즘 미술
- 조수진(성신여자대학교)

• 2부

1. 지역미술사 연구를 위한 아카이브 방법론: 경기도미술관 연례기획전 <경기아트프로젝트>를 중심으로
- 김종길(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2. 1970-80년대 제주미술의 지역성과 초지역적 연대
- 양은희(한국예술종합학교)
3. 한국 앵포르멜 태동과 광주 추상미술 가로지르기
- 김허경(전남대학교)
4. 빈정거리는 배려와 텅 빈 질문
- 강선학(미술평론)

<국립중앙박물관 아카이브의 역할과 전망>

일시 2022.10.25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제1강의실, 국립중앙박물관 유튜브

주최 국립중앙박물관

• 1부: 아카이브 자료의 중요성과 활용 가치

1. 국립중앙박물관 관사 자료의 의미와 가치
- 장상훈(국립진주박물관)
2. 디지털 전환에 따른 대용량 자료의 관리와 활용
- 이재호(한국전자통신연구원)

• 2부: 국내외 기관의 아카이브 구축 사례

1. 국립현대미술관 아카이브의 설립과 운영
- 이지희(국립현대미술관)
2.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아카이브 구축과 활용
- 김종태(국립민속박물관)
3. 도쿄국립박물관 아카이브와 디지털 아카이브
- 타라시마 사토시(도쿄국립박물관)

• 3부: 박물관 아카이브의 역할과 방향성

1. 국립중앙박물관 아카이브 시스템의 기능과 역할
- 권혁산(국립중앙박물관)
2. 국립중앙박물관 아카이브센터 관리대상 및 운영방안
- 김화경(한국문화정보기술)
3. 국립중앙박물관 아카이브 센터의 발전 과제와 전망
- 박주석(명지대학교)

<2022년 국립민속박물관 국제학술대회: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과 전시 평가>

일시 2022.10.25

장소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주최 국립민속박물관

1. 전시 및 프로그램의 관람객 반응 응용 연구의 이점, 난점 및 취약점
- 마리 클라테 오닐(COM-CECA 교육·문화활동국제위원회 회장)
2.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평가: 사회적 고립 감소를 위한 사례 연구
- 하이지 홀데(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 교육부장)
3. 박물관 교육의 평가 -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
- 이수영(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학과 교수)
4. 영향 측정하기: V&A 교육의 사례 연구
- 헬렌 차먼(영국 빅토리아&앨버트 박물관 교육부장)
5. 상설전시 평가 개선방안 고찰: 국립민속박물관 사례를 중심으로
- 오아란(국립민속박물관 전시운영과 학예연구사)
6. 국립박물관 어린이박물관 관람객 행동연구와 평가
- 박연희(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과 학예연구사)
7. 아시아문명박물관(ACM)의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평가 사례 연구 - 박물관 기반학습 : 초등학교 6학년 대상 '아시아 모험(Asian Adventures)' 교육 프로그램
- 멜리사 비스와니(싱가포르 ACM 및 페라나칸 박물관 교육과 부과장)
8.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참여적 박물관 평가 방안 탐색 연구
- 최지혜(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강사)

<인간과 환경이 만나 예술이 되다: 공간성과 장소성>

일시 2022.10.29

장소 연세대학교 외솔관 201호

주최 한국미술사학회

• 1부

1. 낙산(洛山)과 보타산(普陀山), 그리고 고려 수월관음도
- 최선애(명지대학교)
2. 요대 팔대보살만다라의 이동과 의례의 다양화
- 성서영(목원대학교)
3. 조선 후기 '일월성신문경' 연구
- 권주영(국립공원공단 문화자원부)

• 2부

1. 19세기 조선 왕실능원의 천장과 석물 제작에 미친 영향
- 전나나(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2. 정조대 화성성역공역의 노아소(爐冶所) 체제와 철물 제작 특징
- 김세린(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3. 신안선 출수 원대(元代) 도자의 유통 과정과 주체
- 장효진(국립광주박물관)

• 3부

1. 선왕(先王)의 영원한 어좌(御座) - 신선원전의 장엄과 의물
- 최영숙(문화재청)
2. 朝鮮時代 水陸會圖에 표현된 人의 공간 - 의식 장면을 중심으로
- 박정원(동아시아미술연구소)
3. 聖과 俗의 공간: 에도시대 가이초(開帳)와 사찰 소장품의 전시
- 이정은(이화여자대학교)

〈2022년 제39회 불교미술사학회 학술대회〉

일시 2022.11.12

장소 통도사정보박물관 문화센터

• 1부

1. 예천 개심사지 연구
- 전병진(한국문화연구원)
2. 조선시대 천왕문 형성과정 연구
- 정여원(동국대학교)
3. 영주 속수사지 출토 소금동불 연구
- 정유진(부산근현대역사관)

• 2부

1. 황해도 黃州 成佛寺 無量壽鑄成願文과 시주자 연구
- 이경주(불교문화재연구소)
2. 부산 금수사 목조불좌상을 통해 본 17세기 조각승 계찬 연구
- 장은영(동국대학교)
3. 1748년 寶月寺 佛事의 기획자 鞭羊門中과 조각승 印性·縉俊
- 최수민(국외소재문화재재단)
4. 19세기 천수관음도의 성행과 鎭衍 作 해남 대둔사(대흥사) 낙서암 천수관음도(1865)
- 박은경(영지대학교)

국제심포지엄 〈나의 백남준〉

일시 2022.11.18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대강당

• 1부

1. 백남준: 미디어 선각자이자 외교가
- 바바라 런던(큐레이터/저술가)
2. 스미소니언 아메리칸 아트 뮤지엄과 백남준 아카이브의 협업
- 사이샤 그레이슨(스미소니언 아메리칸 아트 뮤지엄 큐레이터)
3. 백남준의 텍스트 아카이브, 그 힘과 의미
- 임산(동덕여자대학교 교수)

• 2부

1. 사후 보전에 대해 이야기 할까요? 백남준에게 보내는 편지
- 한나 힐링(베른 예술대학 연구교수,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명예 부교수)
2. 백남준과 TV테크놀로지
- 이원곤(한국기초조형학회 회장)
3. 다다익선-보존 복원과정과 예방보존 방안
- 권인철(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 3부

1. 백남준의 유산: '글로벌 그루브'와 그 이후
- 이지은(명지대학교 교수)
2. 백남준 작업의 비결정적인 시간성
- 김희영(국민대학교 교수)
3. "기화와 틈새": 동시대 미술을 향한 백남준의 행로
- 그레고리 진먼(조지아 공과대학교 교수)

〈2022년 동양미술사학회 추계학술대회〉

일시 2022.11.19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

주최 동양미술사학회

• 1부

1. 동아시아 정토판화의 세계
- 한상길(고판화박물관)
2. 명말청초 倪黃의 형성과 의미
- 김경은(고려대학교)
3. 宋代瓷器에 보이는 嬰戲紋의 유형과 확산양상
- 김희영(허준박물관)

• 2부

1. 고려청자茶具의 용도와 의미
- 최명지(국립광주박물관)
2. 근대 궁궐건축에 유입된 清代 장식과 공예품
- 조시내(문화재청)
3. 고려 전기 나한상의 조성과정과 특징
- 김동현(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4. 하남 하사창동 철조여래좌상과 고려 혜종대의 불교조각

- 정성권(단국대학교)
- 5. 1650년 금산사 석가여래삼존상(현 동국사 봉안) 연구
 - 신주연(서울역사박물관)

〈세계 속의 한국미술, 그 수집과 전시〉

일시 2022.11.26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 한국미술사학회 유튜브

주최 국립중앙박물관, 국외소재문화재단, 한국미술사학회

- 1부: 해외 박물관의 한국미술품 전시와 연구
 - 경계의 확장: 미국 내 한국 미술의 미래
 - 이소영(하버드미술관)
 - 국내 전시 사례를 통해 본 국외 소재 한국문화재에 대한 인식의 변화
 - 신소연(국립중앙박물관)
 - 한국문화재 국외 전시의 최근 경향과 방향성 모색: 용산시기 국립중앙박물관 사례를 중심으로
 - 선유이(국립중앙박물관)
- 2부: 해외 한국미술품 컬렉터와 컬렉션, 소장경위, 한국 미술품 연구
 - 덴마크국립박물관 소장 오이센 컬렉션의 기산 풍속화
 - 마틴 피터슨(덴마크국립박물관)
 - 1920년대 일본의 한국다완과 차 애호가
 - 안네그레트 버그만(도쿄대학교)
 - 한국미술과 오히이오 기독교 선교사들: 세브란스와 그 외
 - 수아 임 맥코믹(클리블랜드미술관)
 - 한국의 역사와 미술에 대한 19세기 역사기술방식 탐색
 - 샬롯 홀릭(런던대학교 소아스)
- 3부: 해외 박물관의 외국미술품 수집과 연구 및 활용
 - 걸프지역의 수집 관행: 카타르의 국가 컬렉션 구축과 셰이크 사우드 알 타니의 기여
 - 무니아 체크합-아부다야(이슬람예술박물관)
 - 박물관의 티베트 살펴보기: 티베트 소장품에 대한 논쟁과 동시대적 내세
 - 토티엔 켈상(옥스퍼드대학교)
 - 디지털 베네통: 되찾은 아프리카 왕실 예술의 보물
 - 바바라 플랑켄스타이너(로텐바움 세계문화예술 박물관)

〈2022년 제24회 동원학술대회〉

일시 2022.12.2-12.3

장소 국립춘천박물관 강당

- 12.2.
 - 19세기 중인 조희룡의 일상 탐구
 - 이수경(국립중앙박물관)

2. 안악3호분 음악도상에 대하여
 - 김성명(전 국립제주박물관장)
3. 박물관 학술연구 현황과 과제
 - 이동관(국립중앙박물관)
4. 박물관의 학술성 제고를 위한 제언
 - 오영찬(이화여자대학교)

• 12.3.

1. 동원 기증품 신라 장경호와 신라 토기의 지역 양식
 - 김대환(국립경주박물관)
2.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백자양각연당초문화병의 재 복원
 - 황현성·나아영·홍성혁(국립중앙박물관)
3. 반가사유상 브랜딩의 성과와 과제
 - 신소연(국립중앙박물관)
4. 팬데믹 시대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의 확장
 - 이영신(국립광주박물관)

국·공립박물관 보존과학 역량 강화 및 지원 방안 모색

일시 2022.12.7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교육동 제1강의실

주최 국립중앙박물관

- 1부: 국립박물관 보존과학: 목표와 역할
 - 〈문화유산 과학센터〉 과학적 관리체계 구축 계획
 - 이영범(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부)
 - 국립민속박물관 보존과학실 운영 현황
 - 전지연(국립민속박물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 자료의 보존관리 및 보존처리 현황
 - 안주영(대한민국역사박물관)
 -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한글자료의 보존관리 현황
 - 김미도리(국립한글박물관)
- 2부: 미술관, 도서관 보존과학: 목표와 역할
 - 미술관 보존과학 운영과 대회 지원 현황
 - 임성진(국립현대미술관)
 -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보존 현황 및 미래 발전 계획
 - 현혜원(국립중앙도서관)
- 3부: 공립박물관 소장품 보존: 자원과 협력
 - 박물관 평가 인증제와 문화유산 과학센터 사업과의 연계방안 모색
 - 임재완(문화체육관광부)
 - 국립박물관 소장품 보존관리 지원의 효율화를 위한 제언
 - 국립박물관 평가인증 지표 개선과 관련하여-
 - 홍원익(안성맞춤박물관)
 - 국립박물관의 소장품 보존처리 상황과 향후 과제
 - 이재완(예천박물관)